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2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제2학기 개강

제2회 목회자세미나 제2학기가
내일 오후 2시에 개강한다.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이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는 이번 학기로 8학기째를 맞이했는데, 연인원 1만명을 넘는 목회자가 참여했다.

이번 학기는 “예배와 설교”라는 주제로 7월 15일까지 10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성장연구원은 1천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제1교시에서 “예수의 설교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할 수고하게 될 것이다.

일 자 (월요일)	제 1 교 시 오후 2시-3시 30분	제 2 교 시 오후 3시 50분-5시 20분
5월 13일	주제 : 예수의 설교 연구 이종윤 목사	설교 사역과 한글 문화 정장복 교수
20일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이상근 목사
27일		강해설교의 방법 박영희 목사
6월 3일		설교자의 표현과 전달법 이성현 목사
10일		설교와 교회성장 김삼환 목사
17일		예식과 설교 최 훈 목사
24일		개혁주의의 예배 이진태 교수
7월 1일		설교 준비의 실제 박종렬 목사
8일		예배와 예배음악 광상수 교수
15일		이상적인 예배의식 정규남 목사

교회 부흥과 성장 모델 제시할 제2차 김치(KIMCHI) 세미나

5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김치(KIMCHI) 세미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주관 부서인 국제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KIMCHI)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워크북 제작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시아에 있는 중국어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교회 사 개요, 영적 갱신과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 교회 갱신을 위한 교육 선교, 한국 교회 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 갱신을 위한 다락방 운동·예배·상담·선교·한국의 선교운동, 교회 성장전략 평신도 전도운동을 주제로 14차례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어 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기간 동안 선교 보고(간증), 각국에 적합한 선교 전략 수립, 교회·신학교 탐방도 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김치(KIMCHI) 세미나는 외국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교회 성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한국 교회는 이 세미나를 통해 세계를 향한 최선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부흥과 성장의 모델을 아시아 및 세계 교회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3차 김치(KIMCHI) 세미나는 8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은태 목사 홍콩충현교회로 파송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8월 임시 당회를 열고 김은태 목사(제10교구·중등3부 지도)를 홍콩충현교회로 파송하고, 6월 16일에 파송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0인 전도대

70인 전도대는 지난 5월 4일(토요일) 전도 훈련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50명의 대원에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 결신자수는 당초 목표 15명을 초과한 57명에 이르렀는데 먼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현의 지교회인 제현교회에서 26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4월 3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진 서울지역(강남 고속터미널, 남부 터미널, 구의 터미널, 상부 터미널, 서울역, 동심 유원지, 양재 세민 공원)에서 실체한 전도에서 31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유아세례를 받던 날이 었듯 같은데, 벌써 엄마의 손을 잡고 어깨에는 노란색 충현가방을 메고 교회에 와 예배시간에 엄마를 따라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네. 충현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충현교회 탁아부로 부터 시작하여 각부 교회학교를 거쳐 충현에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자녀를 낳아 계대(繼代)를 이어갈 자녀야말로 충현을 영적 고향으로 삼은 충현인이 될 것이니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충현은 자녀와 함께 할 것이니,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 긍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주게.

아파트와 아스팔트 문화의 혜택을 입고 사는 현대인에게 고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충현의 아름다운 동산이 자녀의 고향이며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발에 등불이 되어줄 것일세. 땀을 수룩 맺어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입만 아파 뱀아빠릴 고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귄수룩 맺어 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며 자랑스런 귀한 천국일꾼이 되어 주기를 나는 오늘도 쉬임없이 기도하네.

5. 12
이 종윤 목사

부목사 네분 청빙

지난 5월 8일 충현기도원에서 장로·목사 기도회를 열고,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4명의 부목사를 새로 청빙하기로 하였으며, 5월 말부터 담당 부서에서 봉직하게 된다.

신임 교역자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김용기 목사

55년 출생
81년 중앙대 정경대 졸업
87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
88년 목사 안수
제10교구 지도



김광국 목사

59년 출생
84년 총신대 졸업
87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
88년 목사 안수
제7교구 지도, 중등3부 지도



장경철 목사

58년 출생
83년 고려대 제철학과 졸업
87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
90년 목사 안수
제11교구 지도



홍창민 목사

57년 출생
85년 총신대 졸업
88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
90년 목사 안수
교육목사



제2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내일 개최

제28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드디어 내일(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행 5:20)는 표어 아래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전국의 목사·장로들에게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유인식 목사(총회장)가 개회 예배의 설교를 맡고, 이종겸 목사, 신세원 목사, 김동권 목사가 특별기도회에서 설교한다. 박아론 목사가



종윤 목사가 오랜 강의를, 강승삼 목사, 정일웅 목사가 세미나를, 이봉학 목사, 이정태 목사가 저녁 집회의 설교를 맡는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위하여 합심 기도하며 봉사하기로 했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주님이 주신 말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요12:44~50)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1.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동시에 신성 또한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 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2.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46)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어두움에 속한 곳이며, 예수 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요 12:47)

“지키지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은 ‘믿지 아니할지라도’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신성을 가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본문 4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 자신을 교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더럽기 짝이 없고 추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용을 것 하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갈파하였던 것입니다(딤후 1:15).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8, 9) 이 말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들과 같이 더럽고 못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고로 불신앙은 무서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만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에 빠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인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계시라고 하여 자연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특별계시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계시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지 아니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요 12:44, 45). 이런 진리를 깨달은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시여”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

리스도 없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밝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들의 영혼은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어두운 마음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 12:36)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려는 것은 빛의 생령 곧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함이 빛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3.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심판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생활을 해나가야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형편없습니다. 생각한 것, 계획한 것, 움직이는 것, 행한 것, 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차선일지, 내용을 만한 것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항상 유익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말씀에 의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서는 그것을 완전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얼마나 빛이나 있는지를 발견할 수

4. 하나님의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들에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요 12:50)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곧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말씀에 요한복음의 여가 제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요 6:63, 68, 8:51).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행 2:38, 17:30).

박승준: 오는 5월 21일에 잠실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충현올림픽은 75년과 8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기전: 집행위원회는 이번 충현 올림픽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은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이로써 더욱 단결되고 화합된 모습, 충현의 충현하는 사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을 넓은 경기장에 나가서 펼치게 될 것입니다.

박승준: 이번 올림픽에는 5천여 명의 충현의 성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실내경기장에서 개최 되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박승준: 이번에는 실내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되므로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적인 성격이 짙은 경기 종목들 60퍼센트, 레크리에이션적 성격이 짙은 경기 종목들 40퍼센트로 안배하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구기종목, 성전돌라르기, 응원대회, 무지개따오기, 릴레이, 천국열차 등 전 성도가 화합을 다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기자기한 경

좌담회

제3회 충현올림픽 은혜와 교제의 전국 잔치

일시: 1991. 5. 5

장소: 선교관 405호

참석: 우기전 장로 (올림픽집행위원장)

최상규 장로 (민음팀 단장)

이병학 장로 (소망팀 부단장)

문흥구 장로 (사랑팀 부단장)

송태근 목사 (지도)

박상준 집사 (올림픽집행위원부부장)

사회: 박승준 장로 (올림픽집행위원부부장)



기 종목이 흥미를 더 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팀별로 좌석이 정해지고 유니폼도 착용하여 응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가운데서 모든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준: 각 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흥구: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들은 제일은 사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랑팀은 다른 팀과는 달리 5개 교구로 구성되어 있어 함께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준비

해야 할 것들을 교구별로 분담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는 선수 선발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피켓절이라든지 각 경기의 코치와 감독은 이미 선정을 하여 지금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병학: 소망팀은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몇가지 기록을 갱신하기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경기에서는 물론 승리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질서면에서 신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팀 전체가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선수를 발굴하고 연습함으로써, 화합에 있어서도 기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이 개

최되는 곳이 교회 안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올림픽공원 안의 체육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몸가짐을 해야 할 것이라는 데 팀 전체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선수단을 순수한 충현 식구들로만 구성해서 성도다운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또한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최상규: 믿음팀은 기도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도회를 통해서 선수들을 발굴, 선발하여 연습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승준: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올림픽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송태근: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여 주일 낮예배를 4부로 나누어 드리다보니 한 교회의 성도이면서도 얼굴을 대할 경우가 드문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제의 단절을 느끼곤 하나요, 이는 대형 교회의 체질상 종적인 교제에 비해 횡적인 교제가 무엇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넓은 체육관에 전 교인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의 주제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로 정한 것이고, 경기 종목들도 개인종목보다 팀 전체의 협력을 요하는 것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박승준: 집행위원회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올림픽은 거대한 행사가 될터인데, 이에 따르는 예산도 막대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기전: 예산의 대부분을 교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니폼 제작비 등 일부는 성도들의 성금으로 충당하게도 됩니다.

박승준: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충현올림픽이 이 땅에 기독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목회방침인 "모범적인 교회"의 일면을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차 충현올림픽

경기 세부 진행요령 및 심사 기준 해설 (2)

무지개 따오기

- 인원: 각팀 140명(남, 여 각 70명)
- 준비물: 밧줄 7개
- 대형: 경기장 좌우측 끝에 마주보고 선다.
- 방법: 남녀별로 진행, 중앙에 위치한 밧줄을 자기팀 출발선으로 먼저 끌고오는 경기팀별로 토너먼트 방식, 예선 및 본선 각 1회
- 심사: 1등, 2등, 공동 3등
- 점수: 1등:200, 2등:160, 3등:120(남, 여 합산)
- 대진표: 믿음:충성, 사랑:소망 경기 후 승자대전

농구

- 인원: 고등부·대학부: 청년1·2·3부 각 남 12명(5명 경기)
- 준비물: 농구공
- 대형: 농구경기
- 방법: 전·후반 경기 각 15분(휴식 10분), 작전타임 각 1회, 후반전에는 코트변경, 동점시 연장전 2분 경기
- 심사: 공동 1등, 공동 2등
- 점수: 1등:150, 2등:80
- 대진표: 청(소망, 사랑의 고등, 대학부):황(믿음, 충성의 청년1·2·3부)

4인 2각 릴레이

- 인원: 각팀 24명(남녀 각 12명)
- 준비물: 지네발 판대기, 반환점
- 대형: 릴레이 대형
- 방법: 남녀별로 진행, 4인 1조가 되어 앞사람 어깨를 짚고, 판대기에 부착된 고리에 발을 끼우고 반환점 돌기
- 심사: 1등, 2등, 3등, 4등
- 점수: 1등:150, 2등:120, 3등:90,

피구

- 인원: 각팀 여자 30명
- 대형: 피구 경기
- 준비물: 배구공, 네트
- 방법: 공격, 수비 각각 15명, 경기시간 종료까지 수비 선수가 많이 남아 있는 팀 승리, 팀별로 토너먼트 방식, 경기시간은 10분, 수비 선수가 공을 받은 경우 퇴장 순서대로 수비 선수 입장
- 심사: 1등, 2등, 공동 3등
- 점수: 1등:200, 2등:150, 3등:100
- 대진표: 믿음:소망, 사랑:충성 경기 후 승자대전

족구

- 인원: 각팀 남자 10명(5명 경기)
- 준비물: 족구공, 네트
- 대형: 족구 경기
- 방법: 족구경기 규칙에 준하되 15점 1세트, 서비스는 1회, 8점시 코트 변경, 팀별 토너먼트 방식
- 심사: 1등, 2등, 공동 3등
- 점수: 1등:200, 2등:150, 3등:100
- 대진표: 사랑:소망, 믿음:충성 경기 후 승자대전

(올림픽집행위 제공)

다락방 순례

전도와 봉사로 부흥 거듭

- 제4교구 양지2다락방 -

이번 주 주간충현이 찾아본 제4교구 양지2다락방은 그 어느 다락방보다 전도 활동에 열심인 다락방이다.

원래 양지 지역에는 세 가정 정도만이 충현의 식구였는데 교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잇점을 최대한 발휘, 온 다락방 식구들이 열심으로 전도 활동을 벌여서 양지 지역에만 네 다락방으로 불어나게 되었다고 현재 양지2다락방에는 약 10가정 정도가 꾸준히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는 식구들의 연령층이 젊고 또 비슷비슷한 나이들이라 어려운 일도 비교적 쉽게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해결하고 있고 모임도 무척 적극적이라고 한다. 교회에서 봉사의 손길을 요청할 때도 열번 발 벗고 나서서 양지2다락방의 봉사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양지2다락방의 다락방장으로 수고하시는 주경자 집사님은 구역 식구들이 무척 열심이라서 오히려 다락방장으로 부족함을 느끼신다며 협력 예배를 가지는 날은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워

던 남성분들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였다. 이 협력 예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시행되고 있고 구역 식구들의 반응도 무척 좋아서 앞으로도 여건 되는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평소 다락방 모임에서도 전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전도 대상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새로운 다락방 식구들은 특별히 다락방장이 깊은 관심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

위임목사님이 다락방장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지도하심에 따라 다락방 식구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주경자 집사님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다락방의 부흥, 발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충현의 식구들 모두가 모두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 다락방 활동에 내실화를 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제4차 흥해작전

은혜와 질서 정립할 새벽 기도 운동

우리 교회는 해마다 실시했던 흥해작전이라는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하였고, 예수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책임있는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

로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 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서 압축한 이 민족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어 불신과 반목, 갈등과 분쟁이 없는 성숙한 천국시민으로서 은혜와 질서를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제4

차 흥해작전 새벽 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제1차 흥해작전(88. 6. 6)부터 제4차(91. 6. 6)에 걸쳐 우리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으며, 큰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년 도	주 제	표 어	행 동 강 령
제1차	'88	영적 각성과 예수께 헌신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1. 절대 신앙 2. 절대 충성 3. 절대 순종
제2차	'89	교회 갱신과 민족 복음화	• 거듭난 인간 • 성숙한 신자 •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1. 오직 말씀만 2. 오직 믿음만 3. 오직 은혜만
제3차	'90	21세기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 운동	•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마 7:12)	1.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2. 힘을 다해 절제하고 3. 힘을 다해 봉사하자
제4차	'91	은혜와 질서	• 주일은 거룩하게 • 생활은 검소하게 • 질서는 내가 먼저	1. 신앙 질서 회복 2. 창조 질서 보존 3. 천국시민 질서 보존

■ 선교지 소식 - (3)

인술 통해 복음 전파

- 유병세 일본 선교사 -



유병세 선교사는 인술을 통하여 우상과 미신의 나라 일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유 선교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어업 종사자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다. 유 선교사는 이들에게 전료를 해줌과 동시에 주님의 복음으로만이 완쾌될 수 있다고

권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주변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지를 배부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권하고 교회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76년 3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 제1호로 파송된 이래 1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 선교사는 오늘도 충현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그리고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주신 선물을 애리야! 이 세상에 갓 태어난 너를 안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단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은 엄마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체험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나의 정장은 엄마의 명작인 성장과 거의 동일하다. 하나님 땀에는 아파라고 부를 수 없었던 내가 국민학교 첫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아파라고 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나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뜨거운 눈물로 싸구어짖은 웅얼거림!

너와 내가 이렇듯 한시편으로 여러 연약함을 체휼치 아니하시며 늘 채우시고 치료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에게 온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 드리며 소리높여 찬송하자.

애리를 위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계획, 하나님께 드려질 너의 모든 것 때문에 기쁨과 소망, 한없는 기대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곤 한다. 야곱이 꿈 속에서 본 하늘로 이어져 내려온 사다리를 오르라 내리락 하는 천사를 처럼 기도 속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

독자의 난

너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날들

김 주 아 전도사
(제9 교구 부처도)

락내리락 하는 엄마의 기쁨을 나는 이해할까? 결혼을 해서 애리가 엄마가 되어서 너의 아기를 위해 기도할 때쯤이야 이해될까? 나는 유난히도 조용하고 주변의 위함을 싫어하고 조심하던 어른이여, 였던가. 돌 전에 걸었던 너는 9개월 쯤 되었을 때 뒤뚱대고 잘 걸을 때였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시키고 옷

을 씻는 모습이 없어 너는 아기때도 사랑받던 천재였지! 기도하고 했을 물린 너는 젖을 먹을 때도 아편 할 때 까지 내 눈을 지켜보고 기다리던 착한 아가였단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날들이 모두 너와 함께였단다. 엄마는 너를 바라볼 때 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고, 네게

향한 나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 질수록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되었기에 얼마나 순간순간이 행복했던 날들이었는지 그 슬픈 날들이 사랑의 밑거름이 되리라. 다. 엄마는 너무 몸이 약해서 너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염려하다가도 그 염려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큰 불

신인생을 알았기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로 하고 오늘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에만 해나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는 18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주셨는지,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게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까지 배부른 은혜를 소리높여 찬송드리자! 너와 내가 함께 한

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락방장들은 이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어 다락방의 부흥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다락방장 상호 간에도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이제까지의 교육 소감을 전했다.

다락방장 교육 성황리에 진행

다락방장 교육이 매주 수요일 I 부 예배와 II 부 예배가 끝난 후 갈릴리움에서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다. 4월부터 이종운 위임목사가 직접 강의를 맡고 있는 이 교육에는 17개 교구의 거의 모든 다락방장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다락방 전원이 모두 이 교육에 출석하는 교구도 있

베드로전도회 협의회 15일에 기도회

베드로전도회 협의회(회장 강봉수 집사)는 5월 15일 (수) 저녁 9시에 소석관 201호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회장단측은 회원들이 이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베드로 전도회의 부흥과 김치(KIMCHI) 세미나, 흥해작전 등 교회의 각종 행사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역자 비상호출가 휴대

우리 교회는 효과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기 위해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비상호출가를 휴대케 하였다. 목사님을 긴급히 찾으실 성도는 우리 교회 대표 전화 552-8200으로 연락을 주시면 10분 이내에 목사님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성도들의 활용을 기대한다.

목소리로, 한 시선으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사랑스런 그 이를, 존귀하신 그 이를, 영광의 주님을 높여 만방에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전하자! 나의 사랑 애리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엄마의 행복인 것을 애리는 알고 있었지. 친구에게 전도하는 나를 볼 때마다 소망으로 일어나는 금방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라네.

교회에서 핸드벨 찬양대원으로 찬양드리는데 나의 모습은 언제나 찬사를 받는 것인데 애리는 활활하다. 땀에 흠뻑 젖고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섬기는 내가 되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애리야! 애리야!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개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자!